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1월 11일(화) 총 5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미래산업과	담당자	• 로봇산업팀장 • 담당자	송용석 ☎440-3106 김미영 ☎440-3108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로봇산업 혁신 도시 발돋움!

- ‘로봇산업 성장 고도화’ 목표로 2022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 추진 나서 -
- 지난해 꾸준한 로봇산업 성장 지원으로 가시적인 성과 거둬 -
- 곧 현실이 될 로봇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확대해 나갈 것 -

인천시가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 도시로 도약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략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로봇산업과 로봇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도시 인천’을 미래 비전으로 하는 지난 2019년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종합계획(‘20 ~ ‘24년 5개년 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 로봇기업 창업 지원, 연구개발, 디자인개발, 홍보 지원, 인천형 특화로봇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투자를 확대(‘21년 18억 원→‘22년 23억 원)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실증 등 특화로봇 지원 분야 확대 지원 및 정책 연구

를 통해 로봇산업 지원 시책 등을 발굴 육성하고, 정부 로봇 실증, 기술개발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인천의 로봇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 2022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주요내용 >

- ❶ (로봇기업 성장지원) 스타트업 육성,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스타기업 육성
- ❷ (로봇문화 확산) 로봇행사 지원, 로봇 홍보 플랫폼 운영, 로봇교실 운영
- ❸ (특화로봇 육성) 물류/사회적약자/비대면/엔터테인먼트 로봇 실증, 중소기업 로봇도입 지원
- ❹ (협력 네트워크 운영)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컨퍼런스 개최, 정책 연구 등

또한 시는, 꾸준히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 내 유망 로봇제품의 실증,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에는 로봇분야 창업지원, 사업화 및 홍보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스타기업 육성, 특화로봇 실증 및 중소기업 로봇도입 지원 등 분야에서 총 54개사의 관내기업을 지원했다.

특히 인천의 특화 로봇분야(물류로봇, 엔터테인먼트로봇)의 융합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하는 ‘인천형 특화로봇 사업화 지원’을 통해 인천의료원에 병원균 감염폐기물 견인운반형 물류로봇 실증과, 중소기업 맞춤형 로봇암(로봇의 동작장치) 적용 무인이송로봇의 상품화에 성공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마리오네트 로봇을 개발해 관내 로봇수술 전문병원에 납품을 완료하고, 병원 홍보 및 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의료폐기물 견인로봇



로봇암(Robot arm) 적용 무인이송로봇

코로나 시대에 맞춰 새롭게 진행한 ‘비대면 서비스로봇 실증지원’에서는 실내 및 야외에서 방역과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과, 지하철역 정보 안내 서비스로봇의 개발 및 실증을 완료하고 각각 서구청 및 인천대입구역에서 올해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한다.



실내외 방역로봇



지하철역 안내로봇

이외에도 로봇기업의 신속 사업화를 위해 제품·기술 개발(5개사) 및 홍보지원(6개사), 디자인개발(5개사)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11개사) 등을 지원했으며, 비대면 청소년 로봇 교육, 로봇대회 지원 등 로봇문화 확산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세대 이동통신(5G) 등)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활용분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이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문제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대안으로 로봇산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며 “인천이 곧 현실이 될 로봇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비전과 추진체계

□ 비전체계

비 전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 도시 인천

목 표

로봇산업 성장 고도화

구 분	2018년	2020년	2024년
• 기 업 수	208개사	210개사	250개사
• 고용창출	2,626명	2,204명	3,000명
• 매 출	5,643억원	1조799억원	1조2,960억원

추진방향

- 로봇산업의 주역, **로봇기업 역량 강화**
-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로봇문화 확산**
- 인천만의 **특화 로봇분야 발굴 및 집중육성**
-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전략 및 주요과제

로봇기업 성장 지원

- 인천 스타트업 육성
-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 로봇 스타기업 발굴 및 육성

로봇 문화 확산

- 로봇문화 행사 지원
- 로봇밴 운영
- 청소년 창작 로봇교실 운영

특화로봇 육성

- 특화로봇 실증지원
(물류로봇, 비대면 서비스 로봇 등)
- 중소기업 로봇도입 지원

로봇산업 협력네트워크 운영

- 로봇 협력 네트워크 운영
(컨퍼런스, 비영리 단체 지원 등)
-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 참고)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종합계획(인천시, '19.8.) / 2020년 기준 인천 로봇산업 실태조사(인천테크노파크, '21.11.)

□ 추진체계

인천시(미래산업과)

- 로봇산업 육성 총괄(기획 및 관리)
- 로봇산업 육성 종합·시행계획 수립
- 로봇산업 육성 행·재정 지원 및 대내외 협업 지원



육성정책 개발 및 시행

인천테크노파크(로봇산업센터)

- 로봇산업 육성 전담기관
- 지역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수행
- 로봇문화 확산 및 로봇 꿈나무 발굴
- 로봇산업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로봇산업 육성 전담

로봇산업 혁신 자문단

- 국내 로봇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구성 운영
- 정책자문, 신규사업 발굴 등



로봇산업 육성 정책 자문